

10년간 불우이웃 성금
가장많은 횃수 기부 감사패받은

현대산업 박기식 과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그라비아인쇄 전문업체 현대산업(대표 김치상)에서 일하고 있는 박기식(41·가공부 과장)씨가 지난 10년 동안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장 많은 횟수의 기부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씨는 2000년 3월부터 105개월 동안 일정금액을 경기모금회에 꾸준히 기부해왔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난해 11월 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난히 추운 인쇄업계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 박기식 씨를 만나 보았다.

인쇄 일을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또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요?

유년시절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 생활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중졸이라는 학력으로는 취업하기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학원도 많이 다니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방황하다가 1994년 5월 지금의 현대산업에 입사해 자재관리 가공부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기부를 하고 계신데, 처음 기부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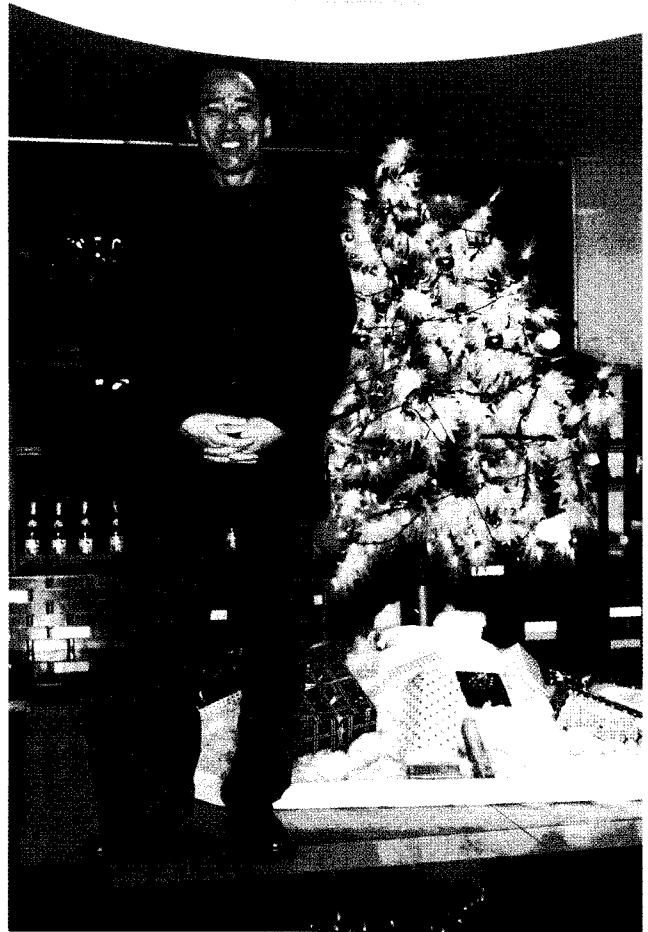
15년 전 서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기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져 새로운 직장을 구해 한숨을 돌리면서 내가 있는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금전적으로 기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장기간 기부를 해오시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요?

기부는 어려운 이웃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 작지만 꾸준한 도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금까지 지속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조직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효율적으로 돈의 쓰임을 정하고 집행하는 것 같아서 처음 모금회에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는 작은 액수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힘들겠지만, 저와 같이 꾸준히 나누는 분들의 기부금과 합쳐지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모금회에서 잘 해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기부하시는 돈이 어디에 쓰여 졌으면 합니까?

육형제 중 다섯째인 저는 어린 시절 유난히 많이 아팠고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유년시절 많이 아파서인지 특히 아픈 어린이들에게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분들과 독거노인들에게도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기부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샐러리맨이라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일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니 만큼 담뱃값과 커피 값을 아껴 꾸준히 기부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술 사줄 돈은 없으면서 기부할 돈은 있나며 섭섭해 하지만 그런 돈 조금이라도 아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돈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쇄업계가 많이 힘든데 인쇄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기부는 어려운 이웃과의 “약속”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인쇄업계도 고객과의 약속을 통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인쇄인들이 서로 협동·단결을 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쉽게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